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2014. 12. 3.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4년 11월 18일 허정행 의원 외 17인
- 나. 회부일자 : 2014년 11월 21일
- 다. 상정일자 :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2014년 12월 3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허 정 행 의원

■ 제안이유

- 서울역 고가도로는 마포구 공덕동 일대부터 도심까지 철도로 단절된 부분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로, 당초 서울특별시는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4차선 도로를 신설할 계획이었으나 철거를 하지 않고 고가도로를 공원화하기로 계획을 변경한다고 발표하였음
- 대체도로 없이 고가도로를 공원화할 경우 공덕동, 아현1동, 신공덕동 등에서 도심으로의 교통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교통대란이 발생하여 마포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원화 사업을 즉각 철회하고 대체 도로 건설 후 추진할 것을 촉구함

3.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상수)

- 서울역 고가도로는 높이 17m, 폭 10.3m, 총 연장 938m의 도로시설물로, 퇴계로와 만리동 간의 한강로, 서울역의 경부·경의선 철도와 청파로를 고가로 횡단함으로써 이 일대의 교통 소통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준공된 지 40년이 지나 노후화되어 안전문제가 제기되자 서울특별시는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4차선 도로를 신설할 계획이었음
- 그러나, 용역까지 마친 서울특별시는 당초 계획과 달리 고가도로를 철거하지 않고 뉴욕의 하이라인파크를 벤치마킹하여 고가도로를 보수 보강하여 꽃과 나무를 심어 녹색 보행공간으로 조성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음
- 서울특별시가 벤치마킹한 뉴욕의 하이라인파크는 지상 9m 높이에 만들어진 2.5km 길이의 공원으로 20년 가까이 방치되었던 철로를 공원화하여 2009년 1구간 완공 후 2011년 두 번째 구간이 완성되었고 올해 마지막 구간 공사가 완공될 예정에 있음
- 서울특별시 계획대로 회색빌딩으로 뒤덮인 서울의 도심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공덕동부터 도심까지 철도로 단절된 부분을 연결하여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고가도로를 철거할 경우 남대문 시장으로 가는 길이 끊겨 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상권이 침체되고 인근 점포와 소상공인의 생존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만리동 고개를 중심으로 공덕동, 아현1동, 신공덕동에 소재하는 소규모 봉제 공장이 크나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20년간 방치되었던 뉴욕의 하이라인파크와 달리 서울역 고가도로는 현재도 많은 차량이 이용을 하고 있어 폐쇄 시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되고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민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4차선 도로를 건설한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